

# Made in Brooklyn

브루클린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

Brooklyn, once a manufacturing hub for products such as sugar and textiles, has long beckoned artists and craftspeople from Manhattan across the East River. Now, with an established and flourishing creative community, the borough has reinvented itself as an incubator for New York's creative force.

한때 설탕, 직물 등 원자재를 생산하는 허브로 기능했던 브루클린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스트리버 건너편 맨해튼에 있는 예술가와 공예가들을 유혹해왔다. 그리고 현재 활발하고 믿음직한 자체 예술 커뮤니티와 함께 뉴욕의 창조력을 책임지는 인큐베이터로 거듭나고 있다.

글. 마리 태 맥더못 / 사진. 벤저민 피터슨

Stefan Rurak in his Bushwick studio  
부시윅에서 가구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스테판 루락.



## Stefan Rurak Studio

Bushwick, Brooklyn's former industrial zone, is now at the heart of the borough's creative boom. Stefan Rurak's studio in Bushwick reflects the artist's work in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Rurak, who has used artistic media such as painting, photography, silk screening, and performance art in the past, decided on becoming a furniture maker as a way to make use of his creativity and at the same time pay the bills. "It's easier to sell a table rather than a painting," he admits. Rurak was attracted to the art of woodworking after discovering the physicality of working with wood. It reminded him of the way he manipulated his body in his time as a performance artist: "I realized that the process became as important, if not more so, than the end result of the work." After completing a woodworking apprenticeship with one of New York's masters, Rurak specialized in bespoke, one-of-a-kind pieces for his clients. His work is modern, restrained, and minimal, and merges conceptual design with traditional craftsmanship.



1. Welding metal parts for his furniture designs
2. Rurak preparing wood for use in his products
3. Handcrafted chair by Rurak's studio



가구를 만드는 스테판 루락의 스튜디오 브루클린 내에서도 공장 지대였던 부시윅 (Bushwick)은 현재 번영하고 있는 브루클린의 예술 신에서 심장처럼 기능한다. 부시윅에 자리한 스테판 루락의 스튜디오는 목재를 다루고 가구를 디자인하는 루락의 작업 과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때 페인팅, 사진, 실크 스크린, 퍼포먼스 아트 등을 하는 예술가였던 루락은 그의 창조적 재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회화 한 점을 파는 것보다 테이블을 파는 게 더 쉬워요." 그가 시인한다. 그는 나무를 다루는 물리적인 측면에 흥미를 느껴 목공 기술에 빠져들게 되었다. 나무를 육체적으로 다루는 일은 그에게 예전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몸을 사용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나무를 다루면서 과정이 마지막 결과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욕의 장인 수하에서 목재 가공에 대한 견습 기간을 거친 후,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전문화시켰다. 그의 작업은 모던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간결하고,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공예 기술과 컨셉추얼한 디자인을 아우르는 숨씨가 뛰어나다.

